

제3권 (8단원 : 성도의 생활 자세)

(제46과) 재물에 대한 성도의 자세

- 본문 : 디모데전서 6:17-19
- 요절 :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 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딤후전 6:18)
- 찬송 : 432장(새찬송가 382장), 434장(새찬송가 384장)

잠언 14장 24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그 미련한 것이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재물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사람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기도 하고 고통과 불행을 가져다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사회에는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황금만능주의 풍조가 만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 부정한 수단과 악행도 마다하지 않는 사람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재물에 대한 잘못된 생각 때문에 생겨난 나쁜 결과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황금만능주의를 배격하고 성경의 가르침에 근거한 바른 재물관을 가지고 재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1. 성실하고 근면한 생활을 통해 재물을 얻어야 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신 후 그에게 에덴동산을 다스리는 일을 맡겨 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비록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는 일하는데 고통이 따르게 되었지만, 일 그 자체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해 주신 소중한 선물입니다. 또 십계명 중 안식일에 관한 계명에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라’는 말씀이 포함되어 있음을 볼 때 일은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부지런히 일하여 풍요로운 생활을 영위하기를 바라십니다.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좇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잠 28:19) 하신 대로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 더 많은 재물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때로는 성실하게 일할지라도 노력한 만큼 대가가 주어지지 않기도 하지만, 그래도 긴 안목으로 보면 성실한 사람이 그 노력한 대로 풍요로운 생활을 누리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성경에 나오는 요셉을 보십시오. 그는 형들에 의해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 애굽에서 노예생활을 하게 되었으나 언제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바로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는 주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는 청지기가 되었고, 그 후에 모함을 받아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할 때에도 전옥(典獄)의 신임을 얻어 옥중 죄수를 관할하는 사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어디서나 성실함으로 사람들의 인정을 받았던 요셉은 드디어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 애굽의 총리 대신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셉과 같이 우리도 언제 어디서나 성실하고 근면한 자세로 최선을 다하므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뿐만 아니라 경제생활에 있어서도 넉넉함을 누리야 하겠습니까.

성경은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 다니는 안개니라”(잠 21:6) 하심으로 불의한 수단과 방법으로 재물을 모으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물은 우리의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만, 불의한 재물은 그것을 가진 당사자는

물론이요 그의 가족과 그와 손잡고 일하는 사람들을 다 패망케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골 3:23)고 하신 말씀과 같이 성실과 근면으로 생업에 힘씀으로 풍요로운 생활을 영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2. 성도는 선한 청지기로서 재물을 사용해야 합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와 그의 말이니라”(학 2:8)는 말씀이나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라”(신 8:18)는 말씀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재물의 원소유자가 누구인지 또 재물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 가르쳐 줍니다. 사람은 재물의 소유자가 아니라 단지 그것을 위임받아 관리하는 자에 불과합니다. 주인의 위임을 받아 집안 살림을 관리하는 청지기처럼, 재물에 대해서 우리는 청지기로 부름 받았으므로 맡겨진 재물을 지혜롭게 잘 관리할 임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 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딤후 6:18)는 말씀처럼 우리는 재물을 가지고 자신을 위해서만 사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과 이웃을 위해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선한 일에 재물을 사용하지 않고 더 많은 재물을 얻는 데만 관심을 둔다면 이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어떤 부자에게 주인의 재물을 허비하는 청지기가 있었는데 주인이 이 사실을 알고 그에게서 청지기 직분을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 청지기는 자기의 직분이 빼앗길 때를 대비해서 그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불러 그들의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그는 사람들에게 선심을 써서 자기가 청지기 직분을 빼앗긴 후에도 그들에게서 응분의 대접을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주인은 불의한 청지기를 책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가 지혜롭게 행한 데 대하여 칭찬했습니다. 주인이 칭찬한 것은 청지기의 교활하고 불의한 행동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제자들에게 교훈하시려고 한 주된 요지는, 청지기의 불의와 부정직에 관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앞날을 위하여 대비할 줄 아는 지혜와 분별에 관한 것입니다. 이 비유에 나오는 청지기는 소중한 일을 대비하여 재물을 사용할 줄 알았기 때문에 칭찬을 받은 것입니다. 재물은 영원한 가치를 지닌 것이 아니지만 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사용하면 참된 진가를 발휘하게 된다는 점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성경은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라”(마 6:20)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 교회 시절에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그들의 재산을 자진해서 사도들에게 가져왔으며 사도들은 그것을 가난한 성도들에게 나눠주는 일을 행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자기의 것을 제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을 만큼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일을 위해 드리기에 열심을 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한 청지기의 자세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재물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사용함으로 주님의 칭찬을 받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성도들은 각자의 성실과 근면에 의해서 얻은 재물로 살아가는 것이 아름답습니다. 정당한 방법에 의해 얻은 재물은 그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일용할 양식을 위한 값진 소득이 됩니다. 우리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둔 선한 청지기답게 우리의 재물을 하나님을 위한 선한 사업에 사용하므로 하늘나라에 보화를 쌓는데 힘써야 하겠습니다.